

파리본 『능엄경』에서 점, 숫자 이외의 어순 표시 기호가 사용된 용례 자료집A
-유형별 분류-

장경준

유형 자료	I (동사에 기입)			II (동사와 목적어에 모두 기입)						III (목적어에 기입)
	I 下 동: 下 목: ×	I 上 동: 上 목: ×	I 末 동: 末 목: ×	II 下-下 동: 下 목: 下	II 下-上 동: 下 목: 上	II 下-Vb 동: 下 목: Vb	II 末-末 동: 末 목: 末	II O-O 동: O 목: O	II 8-8 동: 8 목: 8	III 동: × 목: Vb
법응본 『법화경』	O (5)	O (13)	×	×	×	×	×	O (135) ¹⁾	O (5+1) ²⁾	×
원각사본 『능엄경』	×	×	×	×	×	×	×	×	×	O (5+1) ³⁾
파리본 『능엄경』	O (40+5) ⁴⁾	×	O (2)	O (1)	O (5)	O (8+1) ⁵⁾	O (1)	O (6)	×	O (9)

파리본 용례 총 78개

()는 발견된 용례의 개수

유형 I: 동사에 ‘下’ 또는 ‘末’을 기입

<유형 I 下> 동사에 ‘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에는 표시 없음 (40개)

<유형 I 下下> 동사에 ‘下, 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에는 표시 없음 (5개)

<유형 I 末> 동사에 ‘末’을 기입하고 목적어에는 표시 없음 (2개)

유형 II: 동사와 목적어에 여러 가지 부호나 동사를 기입

<유형 II 下-下> 동사와 목적어에 모두 ‘下’를 기입함 (1개)

<유형 II 下-上> 동사에 ‘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에 ‘上’을 기입함 (5개)

<유형 II 下-Vb> 동사에 ‘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에는 동사를 기입함 (8개)

<유형 II 下下-Vb> 동사에 ‘下, 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에는 동사를 기입함 (1개)

<유형 II 末-末> 동사와 목적어에 모두 ‘末’을 기입함 (1개)

<유형 II O-O> 동사와 목적어에 모두 ‘O’를 기입함 (6개)

유형 III: 목적어에 동사를 기입

<유형 III> 동사에는 표시가 없고 목적어에 동사를 기입함 (9개)

총 78개

※유형 II와 유형 III에서는 목적어를 구성하는 글자 중에 ‘한국어 어순에서 동사 바로 앞에 읽는 글자’(A) 또는 ‘목적어의 마지막 위치에 놓이는 글자’(B)에 부호나 동사를 기입한다.

(‘也’와 같은 문말 어조사는 읽지 않는 글자로 인식하여 A와 무관하지만 B에는 간혹 포함되기도 함)

(A와 B는 일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데, 후자의 경우 A보다 B에 기입된 비율이 높음)

1) 동사와 목적어 중 어느 하나에 ‘O’가 기입되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

2) 5개는 ‘O’와 ‘8’가 함께 쓰이고, 1개는 ‘8’가 단독으로 쓰임.

3) 5개는 목적어에 동사를 기입하고, 1개는 목적어-동사 관계는 아니지만 다음에 읽을 글자를 적어줌.

4) 40개는 동사 성분에 ‘下’가 단독으로 쓰이고, 5개는 동사 성분에 ‘下’가 연이어 ‘下, 下’로 쓰임.

5) 8개는 동사 성분에 ‘下’가 단독으로 쓰이고, 1개는 동사 성분에 ‘下’가 연이어 ‘下, 下’로 쓰임.

<유형 I 下> 동사에 ‘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에는 표시 없음 (40개)

(능엄파리01-04) (유형 I 下) (1:32ㄴ7) 由



皆由下不知二種根本하야 錯亂修習이니

다 두 가짓 根本을 아디 못하야 錯亂히 닷가 니긴 다시니

(능엄파리01-05) (유형 I 下) (1:33ㄴ7) 由



皆由下不知二本하고 錯亂修習홀시니

다 두 根源을 아디 못하고 錯亂히 닷가 니긴 다실씨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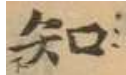
(능엄파리01-06) (유형 I 下) (1:34ㄴ2) 見



我見下如來 | 舉臂屈指하샤 爲光明拳하샤 曜我心目하시논 돌하노이다

如來 | 볼 드르샤 숭가락 구파샤 光明하 주머귀 밍그르샤 내心目에 비취시논 돌 내 보습노이다

(능엄파리01-07) (유형 I 下) (1:38ㄴ7) 知



乃知下雖有多聞하야도 若不修行하면 與不聞과 等호미 如人이 說食호매 終不能飽하든 돌괘이다

비록 해 드로미 이셔도 하다가 修行 아니하면 아니 드롭과 곤호미 사르미 밥 날오매 내중내 能히 비브르디 못
듯하든 돌 알와이다

(능엄파리02-03) (유형 I 下) (2:6ㄴ1) 知



知下汝身を 與諸如來清淨法身과 比類發明컨댄 如來之身은 名正徧知오 汝等之身은 號性顛倒 | 니라

네 모뎀 諸如來清淨하든 法身과 類를 가즈버 發明컨댄 如來스 모든 일후미 正徧知오 너희들히 모든 일후미 性顛
倒하든 돌 아룻디니라

(능엄파리02-04) (유형 I 下) (2:9ㄴ2) 悟



悟下妙明心이 本來圓徧하야 了無遺失하니

法音 듣조모를 因하야 微妙히 불곤 막스미 本來 두려이 퍼 일흠 줄곤 업소물 아니

(능엄파리02-05) (유형 I 下) (2:14ㄴ3) 至



※음독구결과 같은 필체임

非汝 | 며 至下七金山히 周徧諦觀하라

너 아니며 七金山에 니르리 周徧히 子細히 보라

(능엄파리02-09) (유형 I 下) (2:33ㄴ1) 慧



慧下諸有學이 空溺多聞하고 不開慧目하야 而迷倒輪轉也하시니라

모든 有學이 한갓 해 드로매 빠디고 慧目을 여디 못하야 迷惑하며 갓그라 그우뉴를 어엿비 너기시니라

(능엄파리02-13) (유형 I 下) (2:41ㄴ5) 明



皆明下浮塵幻相이 一無實體하야 不容窮詰하든 하시니라

다 뜬 드트릭 거죽 相이 하나토 實하든 體 업서 窮究하야 詰難티 몬호물 불기시니라

(능엄파리02-14) (유형 I 下) (2:51ㄴ1) 喻



喻下性이 無生滅하며 無捨受커늘 以依幻-妄-身홀시 故로 逃形於此하야 托生於彼하시니라

性이 생과 滅왜 업스며 브리며 바도미 업거늘 幻妄하든 모뎀 브틀씨 이런드로 이에 얼구를 逃妄하야 더에 생을

브투물 [가줄비시니](#)

(능엄파리03-01) (유형 I 下) (3:1ㄴ2) 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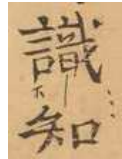
[明](#)[\[下\]](#)眼-入之妄이 同彼也 ㅎ시니라
眼入의 妄이 더 곧 혼 둘 [불기시니라](#)

(능엄파리03-02) (유형 I 下) (3:1ㄴ2) 指



[指](#)[\[下\]](#)色陰中옛 目瞪發勞 ㅎ야 別見狂華 ㅎ샤
色陰 中옛 누늘 바르 떠 잇부미 나 各別히 미친 곳 보물 [구르치샤](#)

(능엄파리03-04) (유형 I 下) (3:22ㄴ1) 識知



云何 [識-知](#)[\[下\]](#)是味와 非味와 ㅎ리오
엇데 이 맛과 맛 아니와를 [알리오](#)

(능엄파리03-08) (유형 I 下) (3:28ㄴ2) 示



[開示](#)[\[下\]](#)衆生中道了-義無戲論法 ㅎ쇼셔
衆生이게 中道了義 노르셋 議論 업슨 法을 여러 [빅쇼셔](#)

(능엄파리03-09) (유형 I 下) (3:29ㄴ8) 直示



[直-示](#)[\[下\]](#)大性이 非和와 不和와 之理 ㅎ샤
大의 性이 和와 和 아니와 아닌 理를 [바른 빅샤](#)

(능엄파리03-10) (유형 I 下) (3:31ㄴ5) 不



[不](#)[\[下\]](#)用識-心 ㅎ야 分-別計度 ㅎ 然後에샤
識心을 떠 分別 ㅎ며 헤아롬 [아니호](#) 後에샤

(능엄파리03-11) (유형 I 下) (3:45ㄴ8) 悟



[悟](#)[\[下\]](#)其本如來藏矣리라
本來入 如來藏을 [알리라](#)

(능엄파리03-12) (유형 I 下) (3:48ㄴ8) 庶



[庶](#)[\[下\]](#)盡斷惑障 ㅎ야 成就果願也 ㅎ니라
惑障을 다 그쳐 果願 일우를 [브라니라](#)

(능엄파리04-03) (유형 I 下) (4:9ㄴ8) 因



[因](#)[\[下\]](#)空昧之土와 生搖爲木과 ㅎ야
空昧 ㅎ 土와 이어오물 내야 木 ㄷ외음과를 [困 ㅎ야](#)

(능엄파리04-04) (유형 I 下) (4:18ㄱ8) 爲



隨爲[下]色空 하야

色과 空과를 조차 드외야

(능엄파리04-09) (유형 I 下) (4:23ㄴ2) 躡



躡[下]上各各圓滿之言 하야

우윗 各各 圓滿이라 하산 마를 드외어

(능엄파리04-13) (유형 I 下) (4:36ㄴ6) 失



失[下]其準常 하니

덜덜호물 일하니

(능엄파리04-14) (유형 I 下) (4:37ㄱ4) 圓成



圓-成[下]果地修證 하리니

果地엿 닷가 證호물 두려이 일우리니

(능엄파리04-15) (유형 I 下) (4:42ㄴ7) 滅



已滅[下]三界衆生世間엿 見엿 所斷惑 하나

하마 三界 衆生 世間엿 보엿 그춤 惑을 滅하나

(능엄파리04-16) (유형 I 下) (4:47ㄴ3) 釋



釋[下]上엿 因妄發故로 六皆虛妄 하시니

우윗 妄을 因하야 發혼 전초로 여스시 다 虛妄호물 사기시니

(능엄파리05-01) (유형 I 下) (5:8ㄱ7) 悟



使悟[下]凡所妄動이 皆爲結業也케 하시니라

믈읷 妄히 動호미 다 민 業이 드외요물 알에 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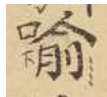
(능엄파리05-02) (유형 I 下) (5:8ㄴ6) 知



汝知[下]此巾이 元止一條 | 어늘 我 | 六綰時에 名有六結인들 하느니

네 이 巾이 本來 다몬 혼 오리어늘 내 여섯 번 뽕 時節에 일후미 여섯 미요미 잇는 돌 아느니

(능엄파리05-03) (유형 I 下) (5:10ㄴ3) 喻



喻[下]依偏權之教하야 不知眞要하고 適重狂勞 하시니

偏흔 權엿 그르치샤물 브터 眞實스 要를 아디 묻고 마치 미치며 잇부믈 重히 호물 가줄비시니

(능엄파리05-07) (유형 I 下) (5:25ㄴ5) 歎



歎[下]我神力이 圓明清淨 하야 自在無畏라 하시느니

내 神力이 圓明清淨하야 自在하야 저품 업스니라 [讚歎하시느니](#)



(능엄파리05-08) (유형 I 下) (5:26ㄱ6) 觀

偏觀[下]百-骸四-支엿 諸冷煖氣하라하시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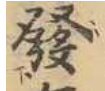
百骸와 四支엿 모든 츠며 더운 氣分을 다 [보라](#) 하시느



(능엄파리06-01) (유형 I 下) (6:17ㄱ5) 明

明[下]彼所現이 雖各一端이나 圓而會之컨댄 咸極於此근들하샤

더의 現호미 비록 各各 한 그티나 두려이 現호컨댄 다 이에 다둔느 돌 [불기사](#)



(능엄파리06-03) (유형 I 下) (6:33ㄱ5) 發

皆發[下]無-等等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하니라

다 無等이 等하신 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을 [發하니라](#)



(능엄파리07-03) (유형 I 下) (7:11ㄴ8) 示現

皆徧示-現[下]十恒河沙金剛密-迹이 擎山持杵하야 徧虛-空界거늘

다 十恒河沙 金剛密迹이 現홀 바드며 杵를 자바 虛空界에 그득기 [보여 現거늘](#)



(능엄파리07-05) (유형 I 下) (7:25ㄴ5) 至

乃至[下]龍天鬼神精祇魔魅의 所有惡呪ㅣ

龍 天 鬼 神 精祇 魔魅이 뒷논 모던 呪에 [니르리](#)



(능엄파리07-06) (유형 I 下) (7:26ㄱ5) 有

一一皆有[下]諸金-剛-衆이 而爲眷屬하야 晝夜애 隨侍하느니라

낫나치 다 모든 金剛衆이 眷屬이 드와야 晝夜애 조차 되서 [잇느니라](#)



(능엄파리07-07) (유형 I 下) (7:27ㄱ7) 得

得[下]於恒河沙阿僧祇不可說不可說劫에 常與諸佛와 同生一處하야

恒河沙 阿僧祇 不可說 不可說 劫에 상네 諸佛와 한 고대 훈디 나물 [得하야](#)



(능엄파리07-08) (유형 I 下) (7:34ㄱ8) 普爲

乃能普爲[下]大-衆과 及諸末-世一切衆生이 修三摩地하야 求大-乘者하야

能히 大衆과 모든 末世 一切 衆生이 三魔地 닷가 大乘 求하릴 [너비 爲하야](#)



(능엄파리08-01) (유형 I 下) (8:3ㄱ8) 當觀

當-觀[下]姪欲이 猶如毒蛇하며 如見冤賊이니라

[반드기](#) 姪欲이 毒蛇근하며 冤讎入 도죽 봄 곤흔 돌 [불디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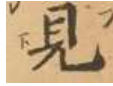
(능엄파리09-01) (유형 I 下) (9:19ㄱ8) 明



以明[下]世界 | 虛幻微芒하야 易以銷殞也하시니라

世界 虛幻하며 微芒하야 수이 스러 물어듀물 볼기시니라

(능엄파리10-01) (유형 I 下) (10:1ㄴ1) 見



見[下]同生基의 猶如野馬하야 熠熠淸擾하야 爲浮根塵의 究竟樞穴하리니

헛가지로 난 터희 野馬 곧하야 熠熠히 물기 어즈러 쓴 根塵의 究竟 樞穴인 둘 보리니

<유형 I 下下> 동사에 '下,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에는 표시 없음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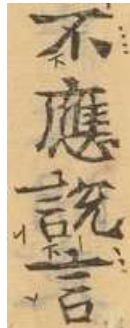
(능엄파리01-08) (유형 I 下下) (1:44ㄱ8) 我,見



我[下] | 見[下]如來 | 百寶輪掌을 衆中에 開合하습노이다

如來 | 百寶輪掌을 衆中에 펴락 쥐락 하샤물 내 보습노이다

(능엄파리02-10) (유형 I 下下) (2:35ㄱ3) 不,說言



不[下]應說-言[下]호디 此捏根元이 是形과 非形과離見과 非見이니라

썩비논 根源이 이 얼굴와 얼굴 아니왜며 봄과 봄 아눔과 여히요물 닐오미 몬하리라

(능엄파리02-11) (유형 I 下下) (2:35ㄱ8) 不,應執



亦不[下]應-執[下]非燈非見이니

燈 아니며 봄 아니라 자보미 몬하리니

(능엄파리05-05) (유형 I 下下) (5:18ㄱ7) 微細,窮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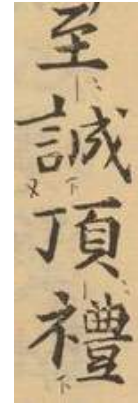
微-細[下]히 窮-盡[下]生住異滅하느 諸行이 刹那하야

生하며 住하며 異하며 滅하느 諸行이 刹那를 微細히 窮盡하야

(능엄파리07-02) (유형 I 下下) (7:9ㄴ3) 至誠, 頂禮

至-誠_[下]頂-禮_[下]十方如來와 諸大菩薩와 阿羅漢號하야

十方 如來와 諸大菩薩와 阿羅漢入 일후를 至誠으로 頂禮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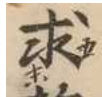


<유형 I 末> 동사에 ‘末’을 기입하고 목적어에는 표시 없음 (2개)

(능엄파리07-01) (유형 I 末) (7:3ㄴ5) 求

求_[末]於十方와 現-住國-土하신 無上如-來 | 放大悲光하샤 來灌其頂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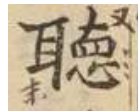
十方와 國土에 現住하신 우 업슨 如來 | 大悲光을 퍼샤 덩바기에 와 브스샤물 求_[末]하디니라



(능엄파리07-04) (유형 I 末) (7:12ㄴ1) 聽

聽_[末]佛無見頂相와 放光如來 | 宣說神呪하습더니

부텃 無見頂相와 放光 如來 | 神呪 퍼 니르샤물 聽_[末]하디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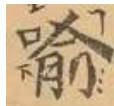


<유형 II 下-下> 동사와 목적어에 모두 ‘下’를 기입함 (1개)

(능엄파리02-12) (유형 II 下-下) (2:36ㄴ7,8) 喻, 淸淨

喻_[下]有漏境-界는 唯妄覺이샤 見之는 卽同業妄-見也 | 오 彼無漏者는 見이 本淸-淨_[下]인들하시니

漏 잇는 境界는 오직 妄하 覺이샤 보몬 곧 험가짓 業의 妄見이오 더 漏 업스닌 보미 本來 淸淨하들 가_[下]줄_[下]비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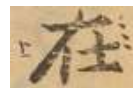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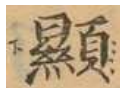


<유형 II 下-上> 동사에 ‘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에 ‘上’을 기입함 (5개)

(능엄파리01-01) (유형 II 下-上) (1:10ㄴ4) 顯, 在

以顯_[下]阿難示迹이 實無虧汚하야 意在在_[上]拔濟也인들하시니라

阿難入 자취 뵈요미 實로 허리며 더러유미 업서 뜨디 싸허며 濟度호매 잇는 들 나_[上]토_[上]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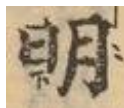


(능엄파리02-02) (유형 II 下-上) (2:5ㄴ6,7) 明, 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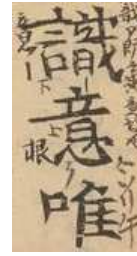
明_[下]諸佛衆生이 同一體性하야 固無遺失커늘 特依倒見하야 言遺失_[上]也인들하시니라

諸佛와 衆生과 體性이 험가지라 本來 일흠 주리 업거늘 오직 갓기 보물 브터 일타 니르_[上]는 들 불_[上]기_[上]시니라

(능엄파리03-06) (유형 II 下-上) (3:25ㄴ2) 識-意



若有所識하면 云何識[下]-意[上]라 하리오
 하다가 아룀 고디 이시면 엇데 識意라 하리오
 [하다가 뜯과 달오디 제 아룀 고디 이췌딘댄 엇데 뜯데서 아노다 하리오]



(능엄파리04-11) (유형 II 下-上) (4:28ㄴ2) 不,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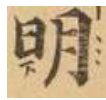
非不[下]本[上]狂이니
本來 미치디 아니흠 아니니



(능엄파리04-12) (유형 II 下-上) (4:31ㄴ5,6) 謝, 益

謝[下]發明覺性하샤 決通疑滯之益[上]也 하소오니라
 覺性を 發明하샤 疑心 마킨 덜 決하야 通히오산 利益을 謝하소오니라

<유형 II 下-Vb> 동사에 ‘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에는 동사를 기입함 (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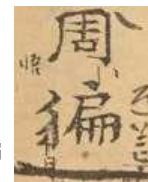
(능엄파리02-01) (유형 II 下-Vb) (2:2ㄴ1,3) 明, 知

明[下]不生滅性은 在纏이 皆具ㅣ 언마른 而世俗이 但隨物化홀시 雖居至貴하야도 終從變滅하리어늘 曾不自知[明]
 ㄴ 돌하시니
 匿王을 브터 니르와드샤몬 生滅 아니하논 性は 없큐메 잇느니 다 𑖀건마른 世俗이 오직 物을 조차 드윳씨 비록
 至極히 貴호매 이셔도 𑖀츠매 變하야 업수물 조츠리어늘 제 아디 묻하논 돌 불기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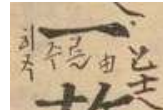
(능엄파리03-03) (유형 II 下-Vb) (3:16ㄴ3) 由, 在

由[下]徵心에 云흔 識生其中則爲心在[由]하샤
 徵心에 닐온 識이 그 中에 나느니 𑖀흠 잇느 디라 호몰 브트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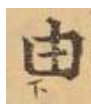
(능엄파리03-07) (유형 II 下-Vb) (3:26ㄴ8) 悟, 周徧

使悟[下]物와 我와 同根하며 是非ㅣ 一體라 法法이 圓成하며 塵塵이 周徧[悟]케 하시니라
 物와 나와 根源이 𑖀가지며 是와 非와 𑖀 體라 法法이 두려이 일며 塵塵이 周徧하 ㄴ 알에 하시니라



(능엄파리04-02) (유형 II 下-Vb) (4:6ㄴ6,7) 由,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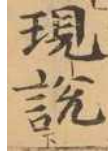
由[下]不如實知眞如法이 一[由]홀시
 眞如法이 하나하론 주를 實다히 아디 몬홀씨



(능엄파리04-08) (유형 II 下-Vb) (4:22ㄴ3) 由, 足

由[下]不勤求無上覺道하고 愛念小乘하야 得少爲足[由]이니라
 우 업슨 覺道를 브즈러니 求티 아니하고 小乘을 드샤 念하야 저기 得하고 足호라 하논 다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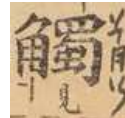
(능엄파리04-10) (유형 II 下-Vb) (4:26-7, 1) 現說



現-說[下]殺盜婬業三緣이 斷故로 三因이 不生하야 心中達多이 狂性이 自歇하야歇하면 卽菩提라 不從人得[現說]이라하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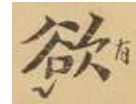
殺盜婬業 三緣이 그흔 전초로 三因이 나디 아니하야 心中엿 達多이 미친 性이 제歇하야歇하면 곧 菩提라 사
락물 브터 得디 아니하리라 現히 니르시니

(능엄파리05-09) (유형 II 下-Vb) (5:27-2.3) 見



見[下]身微塵이 與造世界所有微塵과로 等無差別하야 微塵自性이 不相觸摩하며 乃至刀兵도 亦無所觸[見]하들하야
모맷 微塵이 世界 밍갓갓 微塵과 곧 하야 곁히요미 업서 微塵과 自性이 서르 다티 아니하며 刀兵에 니르러도
또 다호미 업슨 들 보아

(능엄파리09-03) (유형 II 下-Vb) (9:45-2) 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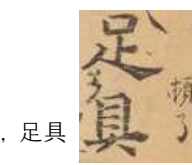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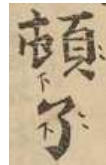


或有[下]宣姪하야 破佛戒律하야 與承事者와로 潛行五俗[有]하며

시혹 姪을 퍼 부터 戒律을 허러 바다 섬기리와 五欲을 그스기 行하리 이시며

<유형 II 下下-Vb> 동사에 ‘下,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에는 동사를 기입함 (1개)

(능엄파리06-02) (유형 II 下下-Vb) (6:17-6, 17-1) 頓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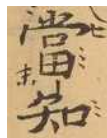


使悟入者로 不止二十五門이라 頓[下][下]八萬塵勞와 法界理事 | 曾不離吾의 一圓融淨覺之體하야 能同能異하
며 卽一卽多하야 無邊刹海에 德用이 徧周하며 十方身土 | 境과 相과 相入하며 邪正吉凶之術와 養生安物之方
이 法法이 圓通하며 塵塵이 足具[見]하샷다

아라 들리로 二十五門뿐 아니라 八萬 塵勞와 法界入 理와 事와 내이 혼 두려이 노곤 조흔 覺이 體에 갓간도
여히디 아니하야 能히 그트며 能히 다르며 곧 하나히며 곧 하 無邊하 刹海에 德用이 徧周하며 十方 身土 | 境
과 相과 서르 들며 邪와 正과 吉과 凶과 術와 生을 養하며 物을 便安케 흥 方이 法法이 圓通하며 塵塵이 모히
그존 둘 다 알에 하샷다

<유형 II 末-末> 동사와 목적어에 모두 ‘末’를 기입함 (1개)

(능엄파리04-01) (유형 II 末-末) (4:5-8, 6-1) 當知



當-知[末]有所와 無所와 是明과 非明과 皆爲妄度 | 라 終非妙明明妙之眞[末]也 | 로다

所 이솜과 所 업솜과 이 明과 明 아니왜 다 거죽 헤미라 내중에 妙明明妙하 眞이 아닌 둘 반드기 알리로다

<유형 II O-O> 동사와 목적어에 모두 ‘O’를 기입함 (6개)

(능엄파리01-03) (유형 II O-O) (1:21ㄴ4,5) 言



言[O]乞食歸林은 乃舉[O]見前엿 方食之衆히시니

밥 비러 林에 도라오다 히샤몬 現前엿 비야히로 밥 먹는 衆을 드러 나르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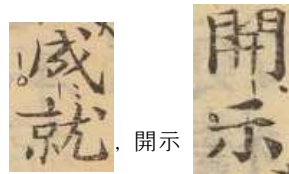
(능엄파리02-06) (유형 II O-O) (2:23ㄱ4,5) 顯



爲顯[O]見과 與見緣과 如虛空花히야 於中에 本無是와 非是義[O]히실시

見과 見의 緣과 虛空엿 곳 곧히야 그 中에 本來 이와 이 아닌 ㅍ디 업수믈 爲히야 나토실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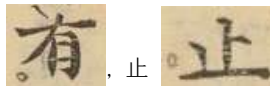
(능엄파리05-04) (유형 II O-O) (5:12ㄴ3) 成就



成-就[O]如來最後開-示[O]히쇼서

如來스 뭇 後스 여러 비샤믈 일우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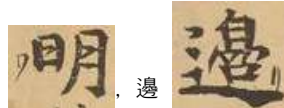
(능엄파리09-02) (유형 II O-O) (9:32ㄱ4) 有



自有[O]無限喜生히야 心中에 歡悅히야 不能自止[O]히리니

제 그지업슨 깃부미 나 心中에 깃거 제 마디 몬히리니

(능엄파리10-03) (유형 II O-O) (10:10ㄱ4, 5) 明



음.

明[O]其世界엿 一切所有도 一半은 有邊히고 一半은 無邊[O]이라 훌시라

그 世界엿 一切 잇는 것도 一半은 有邊히고 一半은 無邊이라 불길씨라

※부호의 모양이 'O'와 차이가 있

(능엄파리10-04) (유형 II O-O) (10:22ㄴ4) 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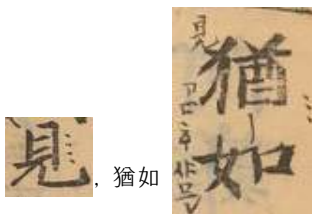


計[O]我 | 能爲彼依히야 能成彼事[O]也 | 라

내 能히 더의 브투미 드외야 더 이를 能히 일우라 혜요미라

<유형III> 동사에는 표시가 없고 목적어에 동사를 기입함 (9개)

(능엄파리01-02) (유형 III) (1:16ㄱ8, ㄴ1) 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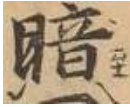
我見如來스 三十二相이 勝妙 | 殊絶히샤 形體 | 映徹히샤미 猶-如[見]琉璃히 습고

如來스 三十二相이 7장 微妙히샤미 ㅍ로 다르샤 形體 스뭇 비취샤미 瑠璃 곧히샤믈 내 보습고

(능엄파리02-07) (유형Ⅲ) (2:28ㄴ2,3) 至  , 塞 

如是乃至因空因塞[至]이

이ㄱ티 空을 因하며 마고물 因호매 니르리

(능엄파리02-08) (유형Ⅲ) (2:28ㄴ5) 至  , 暗 

如是乃至緣明緣暗[至]이

이곤히 밝고물 緣하며 어드우물 緣호매 니르리

(능엄파리03-05) (유형Ⅲ) (3:24ㄱ8,ㄴ1) 知  , 身 

當知身이 卽觸也 | 며 觸이 卽身[知]也 | 로다

반드기 모미 곧 觸이며 觸이 곧 모민돌 알리로다

(능엄파리04-05) (유형Ⅲ) (4:21ㄴ3) 至  , 盡 

如是乃至卽意識界며 卽明無明과 明無明하야 盡[至]이며

이ㄱ티 곧 意識界며 곧 無明 밝고과 無明 밝겨 다오매 니를며

(능엄파리04-06) (유형Ⅲ) (4:21ㄴ3,4) 至  , 盡 

如是乃至卽老 | 며 卽死 | 며 卽老死 | 盡[至]이며

이ㄱ티 곧 老 | 며 곧 死 | 며 곧 老死 | 다오매 니를며

(능엄파리04-07) (유형Ⅲ) (4:21ㄴ6,7) 至  , 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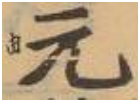
如是乃至卽怛闍阿竭이며 卽阿羅訶와 三耶三菩 | 며 卽大涅槃이며 卽常이며 卽樂이며 卽我 | 며 卽淨[至]이니

이ㄱ티 곧 怛闍阿竭이며 곧 阿羅訶와 三耶三菩 | 며 곧 大涅槃이며 곧 常이며 곧 樂이며 곧 我 | 며 곧 淨에 니르니

(능엄파리05-06) (유형Ⅲ) (5:24ㄴ4,5) 至  , 淨 

如是乃至三千威儀와 八萬微細性業과 遮業과를 悉皆清淨[至]하야

이ㄱ티 三千 威儀와 八萬 微細 性業과 遮業과를 다 清淨호매 니르리

(능엄파리10-02) (유형Ⅲ) (10:5ㄱ7) 由  , 元 

由妄計行陰하야 爲生滅圓元[由]하야

行陰을 妄히 헤여 生滅入 두려운 根元 사모물 브터

파리본 『능엄경』에서 점, 숫자 이외의 어순 표시 기호가 사용된 용례 자료집B

-동사별 분류-

장경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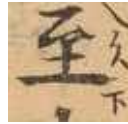
번호	동사[언해문의 동사]	용례수
01	“至”[니르다]	8개
02	“明”[볼기다]	7개
03	“由”[닷(이다), 붙다, -르씨]	6개
04	“知”[알다]	6개
05	“見”[보다]	5개
06	“不”[못 하다, 아니 하다]	4개
07	“悟”[알다]	4개
08	“喻”[가줄비다]	3개
09	“有”[있다, 이시다]	3개
10	“觀”[보다]	2개
11	“示”[되다]	2개
12	“爲”[드외다, 爲 하다]	2개
13	“顯”[나토다]	2개
14	“計”[헤다]	1개
15	“求”[求 하다]	1개
16	“窮盡”[窮盡 하다]	1개
17	“得”[得 하다]	1개
18	“了”[알다]	1개
19	“滅”[滅 하다]	1개
20	“愍”[어엿비 너기다]	1개
21	“發”[發 하다]	1개
22	“謝”[謝 하다]	1개
23	“庶”[바르다]	1개
24	“釋”[사기다]	1개
25	“說”[니르다]	1개
26	“躡”[드디다]	1개
27	“成”[일우다]	1개
28	“成就”[일우다]	1개
29	“識”[알다]	1개
30	“失”[잃다]	1개
31	“言”[니르다]	1개
32	“因”[因 하다]	1개
33	“頂禮”[頂禮 하다]	1개
34	“指”[ㄱ르치다]	1개
35	“聽”[듣다]	1개
36	“歎”[讚歎 하다]	1개
37	“現”[現 하다]	1개

총 78개

※정은영(2002)는 “‘明’에 6회 ‘下’가 기입되어 가장 많이 기입된 한자이다. 그리고 ‘由’에 5회, ‘見’에 4회, ‘悟’에 4회, ‘示’에 3회, ‘喻’에 3회, ‘至’에 3회, ‘不’에 3회, ‘識’에 2회 ‘下’가 기입되어 있었다.”(p.120)라고 기술하였음. 정은영(2002)에 상세 목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본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용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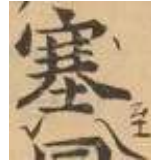
<01> “至”[니르다] (8개)

(능엄파리02-05) (유형 I 下) (2:14ㄴ3) 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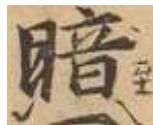
非汝 | 며 至[下]七金山히 周徧諦觀하라
너 아니며 七金山애 니르리 周徧히 子細히 보라

(능엄파리02-07) (유형 III) (2:28ㄴ2,3) 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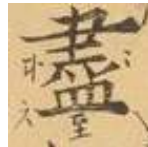
如是乃至因空因塞[至]이
이 ㄱ티 空을 因하며 마고물 因호매 니르리

(능엄파리02-08) (유형 III) (2:28ㄴ5) 至



如是乃至緣明緣暗[至]이
이 ㄱ티 밝고물 緣하며 어드우물 緣호매 니르리

(능엄파리04-05) (유형 III) (4:21ㄴ3) 至



如是乃至即意識界며 即明無明과 明無明하야 盡[至]이며
이 ㄱ티 곧 意識界며 곧 無明 밝고물 無明 밝거 다오매 니를며

(능엄파리04-06) (유형 III) (4:21ㄴ3,4) 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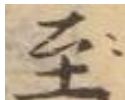
如是乃至即老 | 며 即死 | 며 即老死 | 盡[至]이며
이 ㄱ티 곧 老 | 며 곧 死 | 며 곧 老死 | 다오매 니를며

(능엄파리04-07) (유형 III) (4:21ㄴ6,7) 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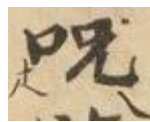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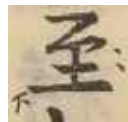
如是乃至即怛闍阿竭이며 即阿羅訶와 三耶三菩 | 며 即大涅槃이며 即常이며 即樂이며 即我 | 며 即淨[至]이니
이 ㄱ티 곧 怛闍阿竭이며 곧 阿羅訶와 三耶三菩 | 며 곧 大涅槃이며 곧 常이며 곧 樂이며 곧 我 | 며 곧 淨에 니르니

(능엄파리05-06) (유형 III) (5:24ㄴ4,5) 至



如是乃至三千威儀와 八萬微細性業과 遮業과를 悉皆清淨[至]하야
이 ㄱ티 三千 威儀와 八萬 微細하 性業과 遮業과를 다 清淨호매 니르러

(능엄파리07-05) (유형 I 下) (7:25ㄴ5) 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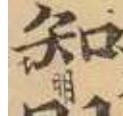
如是乃至[下]龍天鬼神精祇魔魅의 所有惡呪 |
이 ㄱ티 龍 天 鬼 神 精祇 魔魅이 닛논 모딘 呪에 니르리

<02> “明”[불기다] (7개)

(능엄파리02-01) (유형 II 下-Vb) (2:2ㄱ1,3) 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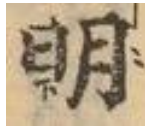


, 知



明[下]不生滅性은 在纏이 皆具 | 언마른 而世俗이 但隨物化홀시 雖居至貴호야도 終從變滅호리어늘 曾不自知[明]
니 들호시니

匿王을 브터 니르와드샤문 生滅 아니호는 性은 없큐메 잇느니 다 ㄱ건마른 世俗이 오직 物을 조차 드윝씨 비록
至極히 貴호매 이셔도 ㄹ츠매 變호야 업수믈 조츠리어늘 제 아디 몬호는 들 불기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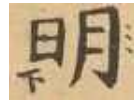


(능엄파리02-02) (유형 II 下-上) (2:5ㄴ6,7) 明

, 失

明[下]諸佛衆生이 同一體性호야 固無遺失커늘 特依倒見호야 言遺失[上]也니 들호시니라

諸佛와 衆生과 體性이 ㄱ가지라 本來 일흠 주리 업거늘 오직 ㄱㄱ리 보믈 브터 일타 니르논 들 불기시니라



(능엄파리02-13) (유형 I 下) (2:41ㄱ5) 明

皆明[下]浮塵幻相이 一無實體호야 不容窮詰인들호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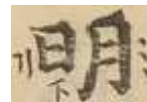
다 ㄸ 드트릭 거줇 相이 ㄱ나토 實호 體 업서 窮究호야 詰難티 몬호믈 불기시니라



(능엄파리03-01) (유형 I 下) (3:1ㄴ2) 明

明[下]眼-入之妄이 同彼也호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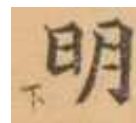
眼入의 妄이 더 ㄱ호는 들 불기시니라



(능엄파리06-01) (유형 I 下) (6:17ㄱ5) 明

明[下]彼所現이 雖各一端이나 圓而會之컨댄 咸極於此니 들호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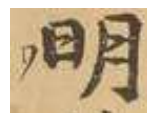
더의 現호미 비록 各各 호 그티나 두려이 ㄹ호컨댄 다 이에 다돈논 들 불기샤



(능엄파리09-01) (유형 I 下) (9:19ㄱ8) 明

以明[下]世界 | 虛幻微茫호야 易以銷殞也호시니라

世界 虛幻호며 微茫호야 수이 스러 물어듀믈 불기시니라



(능엄파리10-03) (유형 II 〇-〇) (10:10ㄱ4, 5) 明

, 邊

※부호의 모양이 ‘〇’와 차이가 있음.

明[〇]其世界엿 一切所有도 一半은 有邊호고 一半은 無邊[〇]이라 홀시라

그 世界엿 一切 잇는 것도 一半은 有邊호고 一半은 無邊이라 불길씨라



<03> “由”[닷(이다), 붙다, -르씨] (6개)

(능엄파리01-04) (유형 I 下) (1:32ㄴ7) 由



皆由[下]不知二種根本호야 錯亂修習이니

다 두 가짓 根本을 아디 못호야 錯亂히 닷가 니긴 다시니

(능엄파리01-05) (유형 I 下) (1:33ㄱ7) 由



皆由[下]不知二本호고 錯亂修習홀시니

다 두 根源을 아디 못호고 錯亂히 닷가 니긴 다실씨니

(능엄파리03-03) (유형 II 下-Vb) (3:16ㄱ3) 由



, 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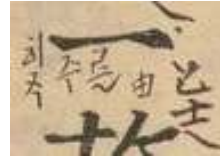
由[下]徵心に 云흔 識生其中則爲心在[由]호샤

徵心に 닐온 識이 그 中에 나느니 므슴 잇는 디라 호물 브트샤

(능엄파리04-02) (유형 II 下-Vb) (4:6ㄱ6,7) 由



, 一



由[下]不如實知眞如法이 一[由]홀시

眞如法이 하나히론 주를 實다히 아디 못홀씨

(능엄파리04-08) (유형 II 下-Vb) (4:22ㄴ3) 由



, 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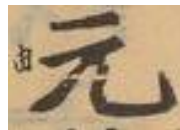
由[下]不勤求無上覺道호고 愛念小乘호야 得少爲足[由]이니라

우 업슨 覺道를 브즈러니 求티 아니호고 小乘을 두샤 念호야 저기 得호고 足호라 호는 다시니라

(능엄파리10-02) (유형 III) (10:5ㄱ7) 由



, 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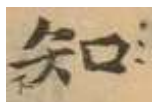


由妄計行陰호야 爲生滅圓元[由]호야

行陰을 妄히 헤여 生滅스 두려운 根元 사모물 브터

<04> “知”[알다] (6개)

(능엄파리01-07) (유형 I 下) (1:38ㄱ7) 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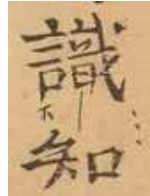
乃知[下]雖有多聞호야도 若不修行호면 與不聞과 等호미 如人이 說食호매 終不能飽툇흔들괘이다

비록 해 드로미 이셔도 호다가 修行 아니호면 아니 드롭과 곧호미 사르미 밥 닐오매 내중내 能히 비브르디 못
툇흔 들 알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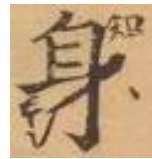
(능엄파리02-03) (유형 I 下) (2:6ㄴ1) 知

知[下]汝身を 與諸如來清淨法身과 比類發明컨댄 如來之身은 名正徧知오 汝等之身은 號性顛倒 | 니라
네 모뎡 諸如來清淨한 法身과 類를 가즈며 發明컨댄 如來스 모뎡 일후미 正徧知오 너희들히 모뎡 일후미 性顛
倒인들 아름디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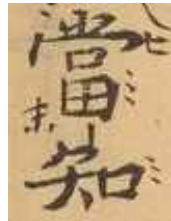
(능엄파리03-04) (유형 I 下) (3:22ㄴ1) 識知

云何識-知[下]是味와 非味와 知리오
엇데 이 맛과 맛 아니와를 알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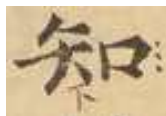
(능엄파리03-05) (유형 III) (3:24ㄱ8,ㄴ1) 知, 身

當知身이 卽觸也 | 며 觸이 卽身[知]也 | 로다
반듯기 모미 곧 觸이며 觸이 곧 모인들 알리로다



(능엄파리04-01) (유형 II 末-末) (4:5ㄴ8,6ㄱ1) 當知, 眞

當-知[末]有所와 無所와 是明과 非明과 皆爲妄度 | 라 終非妙明明妙之眞[末]也 | 로다
所 이솜과 所 업솜과 이 明과 明 아니와 다 거즈 헤미라 내중애 妙明明妙한 眞이 아닌 들 반듯기 알리로다



(능엄파리05-02) (유형 I 下) (5:8ㄴ6) 知

汝知[下]此巾이 元止一條 | 어늘 我 | 六綰時에 名有六結인들 호느니
네 이巾이 本來 다뎡 한 오리어늘 내 여섯 번 뒹 時節에 일후미 여섯 미요미 잇는 들 아느니

<05> “見”[보다] (5개)



(능엄파리01-02) (유형 III) (1:16ㄱ8,ㄴ1) 見, 猶如

我見如來스 三十二相이 勝妙 | 殊絶호샤 形體 | 映徹호샤미 猶-如[見]琉璃호습고
如來스 三十二相이 ㄱ장 微妙호샤미 ㅅ로 다르샤 形體 ㅅ뎡 비취샤미 瑠璃 공호샤물 내 보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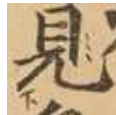
(능엄파리01-06) (유형 I 下) (1:34ㄱ2) 見

我_見如來 | 舉臂屈指하샤 爲光明拳하샤 曜我心目하시는 돌하노이다
如來 | 불 드르샤 순가락 구피샤 光明하 주머귀 밍크하샤 내心目에 비취시는 돌 내 보습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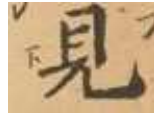
(능엄파리01-08) (유형 I 下下) (1:44-8) 我, 見

我_見 | 見_見如來 | 百寶輪掌을 衆中에 開合하 습노이다
如來 | 百寶輪掌을 衆中에 퍼락 쥐락 하샤물 내 보습노이다



(능엄파리05-09) (유형 II 下-Vb) (5:27-2.3) 見, 觸

見_見身微塵이 與造世界所有微塵과로 等無差別하야 微塵自性이 不相觸摩하며 乃至刀兵도 亦無所觸_見하 돌하야
모랫 微塵이 世界 밍크랫는 微塵과 곧하야 곁히요미 업서 微塵과 自性이 서르 다티 아니하며 刀兵에 니르러도
또 다호미 업슨 돌 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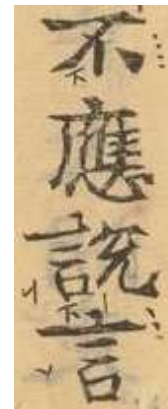
(능엄파리10-01) (유형 I 下) (10:1-1) 見

見_見同生基의 猶如野馬하야 熠熠清擾하야 爲浮根塵의 究竟樞穴하리니
한가지로 난 터히 野馬 곧하야 熠熠히 물기 어즈러 뜬 根塵의 究竟 樞穴인 돌 보리니

<06> “不”[묻하다, 아니하다] (4개)

(능엄파리02-10) (유형 I 下下) (2:35-3) 不, 說言

不_見應說-言_見호디 此捏根元이 是形과 非形과며 離見과 非見이니라
썩비논 根源이 이 얼굴와 얼굴 아니와며 봄과 봄 아눔과 여히요물 닐오미 묻하리라



(능엄파리02-11) (유형 I 下下) (2:35-8) 不, 應執

亦不_見應-執_見非燈非見이니
燈 아니며 봄 아니라 자보미 묻하리니



(능엄파리03-10) (유형 I 下) (3:31-5) 不

不_見用識-心하야 分-別計度하 然後에사
識心을 떠 分別하며 헤아롬 아니하 後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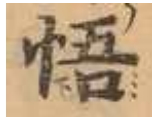
(능엄파리04-11) (유형 II 下-上) (4:28ㄴ2) 不,本

※오류일 가능성 있음

非不[下]本[上]狂이니

本來 미치디 아니함 아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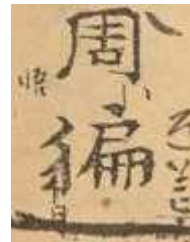
<07> “悟”[알다] (4개)



(능엄파리02-04) (유형 I 下) (2:9ㄴ2) 悟

悟[下]妙明心이 本來圓徧함이 了無遺失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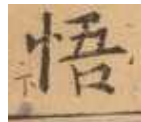
法音 듣조오물 因함이 微妙히 불근 못스미 本來 두려이 퍼 일흠 줄곤 업소물 아니



(능엄파리03-07) (유형 II 下-Vb) (3:26ㄴ8) 悟, 周徧

使悟[下]物와 我와 同根하며 是非 | 一體라 法法이 圓成하며 塵塵이 周徧[悟]케 하시니라

物와 나와 根源이 한가지며 是와 非와 한 體라 法法이 두려이 일며 塵塵이 周徧한 둘 알에 하시니라



(능엄파리03-11) (유형 I 下) (3:45ㄴ8) 悟

悟[下]其本如來藏矣리라

本來스 如來藏을 알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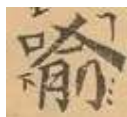


(능엄파리05-01) (유형 I 下) (5:8ㄴ7) 悟

使悟[下]凡所妄動이 皆爲結業也케 하시니라

믈읫 妄히 動호미 다 민 業이 득외요물 알에 하시니라

<08> “喻”[가줄비다]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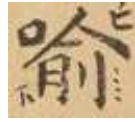


(능엄파리02-12) (유형 II 下-下) (2:36ㄴ7,8) 喻, 清淨



喻[下]有漏境界는 唯妄覺이샤 見之는 卽同業妄-見也 | 오 彼無漏者는 見이 本清-淨[下]인들 하시니

漏 잇는 境界는 오직 妄한 覺이샤 보몬 곧 한가지 業의 妄見이오 더 漏 업스닌 보미 本來 清淨한 둘 가줄비시니



(능엄파리02-14) (유형 I 下) (2:51ㄱ1) 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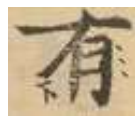
喻[下]性이 無生滅호며 無捨受커늘 以依幻-妄-身홀시 故로 逃形於此호야 托生於彼호시니
性이 생과 滅왜 업스며 브리며 바도미 업거늘 幻妄호 모물 브틀씨 이런드로 이에 열구를 逃妄호야 덕에 생을
브투물 [가줄비시니](#)



(능엄파리05-03) (유형 I 下) (5:10ㄴ3) 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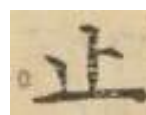
喻[下]依偏權之教호야 不知眞要호고 適重狂勞호시니
偏호 權엿 ㄱㄹ치샤물 브터 眞實호 要를 아디 묻고 마치 미치며 잇부물 重히 호물 [가줄비시니](#)

<09> “有”[잇다, 이시다] (3개)



(능엄파리07-06) (유형 I 下) (7:26ㄱ5) 有

一一皆有[下]諸金-剛-衆이 而爲眷屬호야 晝夜애 隨侍호느니라
낫나치 다 모든 金剛衆이 眷屬이 드외야 晝夜애 조차 되서 [잇느니라](#)



(능엄파리09-02) (유형 II 〇-〇) (9:32ㄱ4) 有, 止

自有[〇]無限喜生호야 心中에 歡悅호야 不能自止[〇]호리니
제 그지업슨 깃부미 나 心中에 깃거 제 [마디](#) 몬호리니



(능엄파리09-03) (유형 II 下-Vb) (9:45ㄱ2) 有, 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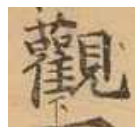
或有[下]宣姪호야 破佛戒律호야 與承事者와로 潛行五俗[有]호며
시혹 姪을 퍼 부터 戒律을 허러 바다 섬기리와 五欲을 그쓰기 行호리 [이시며](#)

<10> “觀”[보다] (2개)



(능엄파리08-01) (유형 I 下) (8:3ㄱ8) 當觀

當-觀[下]姪欲이 猶如毒蛇호며 如見冤賊이니라
[반드기](#) 姪欲이 毒蛇호며 冤讎호 도죽 봄 곤호 돌 [불디니라](#)



(능엄파리05-08) (유형 I 下) (5:26ㄱ6) 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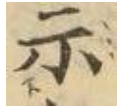
偏觀[下]百骸四支엿 諸冷煖氣호라호야시늘
百骸와 四支엿 모든 츠며 더운 氣分을 다 [보라](#) 호야시늘

<11> “示”[되다] (2개)



(능엄파리03-09) (유형 I 下) (3:29ㄱ8) 直示

直-示[下]大性이 非和와 不和와 之理하사
 大의 性이 和와 和 아니와 아닌 理를 바르 되사



(능엄파리03-08) (유형 I 下) (3:28ㄱ2) 示

開示[下]衆生中道了義無戲論法하쇼셔
 衆生이게 中道了義 노르셋 議論 업슨 法을 여러 되쇼셔

<12> “爲”[되다, 爲하다] (2개)



(능엄파리04-04) (유형 I 下) (4:18ㄱ8) 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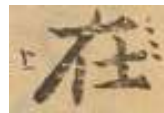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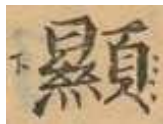
隨爲[下]色空하야
 色과 空과를 조차 되와야



(능엄파리07-08) (유형 I 下) (7:34ㄱ8) 普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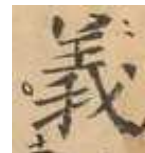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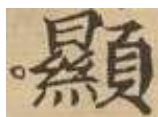
乃能普爲[下]大衆과 及諸末世一切衆生이 修三摩地하야 求大乘者하야
 能히 大衆과 모든 末世 一切 衆生이 三魔地 닷가 大乘 求하릴 너비 爲하야

<13> “顯”[나토다] (2개)



(능엄파리01-01) (유형 II 下-上) (1:10ㄱ4) 顯, 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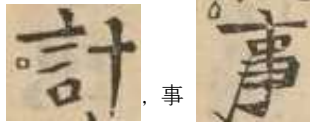
以顯[下]阿難示迹이 實無虧汚하야 意在[上]拔濟也그들하니라
 阿難스 자취 되요미 實로 허리며 더러유미 업서 쁘디 싸허며 濟度호매 잇는 돌 나토니라



(능엄파리02-06) (유형 II 〇-〇) (2:23ㄱ4,5) 顯, 義

爲顯[〇]見과 與見緣과 如虛空花하야 於中에 本無是와 非是義[〇]하실시
 見과 見의 緣과 虛空엿 곳 곧하야 그 中에 本來 이와 이 아닌 쁘디 업수을 爲하야 나토실씨

<14> “計”[혜다] (1개)



(능엄파리10-04) (유형 II ○-○) (10:22ㄴ4) 計

計[○]我 | 能爲彼依하야 能成彼事[○]也 | 라

내 能히 더의 브투미 득외야 더 이를 能히 일우라 혜요미라

<15> “求”[求하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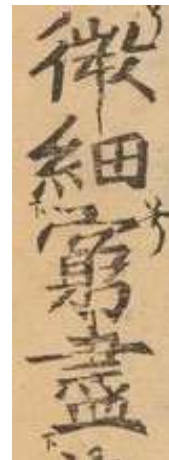


(능엄파리07-01) (유형 I 未) (7:3ㄱ5) 求

求[未]於十方옛 現住國土하신 無上如來 | 放大悲光하샤 來灌其頂이니라

十方옛 國土에 現住하신 우 업슨 如來 | 大悲光을 펴샤 덩바기에 와 브스샤믈 求흠디니라

<16> “窮盡”[窮盡하다] (1개)



(능엄파리05-05) (유형 I 下下) (5:18ㄱ7) 微細,窮盡

微-細[下]하 窮-盡[下]生住異滅하느 諸行이 刹那하야

生하며 住하며 異하며 滅하느 諸行이 刹那를 微細하 窮盡하야

<17> “得”[得하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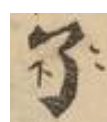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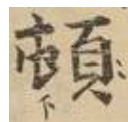


(능엄파리07-07) (유형 I 下) (7:27ㄱ7) 得

得[下]於恒河沙阿僧祇不可說不可說劫에 常與諸佛와 同生一處하야

恒河沙 阿僧祇 不可說 不可說 劫에 상네 諸佛와 혼 고대 혼디 나믈 得하야

<18> “了”[알다] (1개)



(능엄파리06-02) (유형 II 下下-Vb) (6:17ㄱ6,17ㄴ1) 頓

使悟入者로 不止二十五門이라 頓[下]了[下]八萬塵勞와 法界理事 | 曾不離吾의 一圓融淨覺之體하야 能同能異하
며 卽一卽多하야 無邊刹海에 德用이 徧周하며 十方身土 | 境과 相과 相入하며 邪正吉凶之術와 養生安物之方
이 法法이 圓通하며 塵塵이 足具[見]矣샀다

아라 들리로 二十五門뿐 아니라 八萬 塵勞와 法界入 理와 事왜 내이 혼 두려이 노곤 조흔 覺이 體에 잠간도 여히디 아니하야 能히 ㄱ특며 能히 다르며 곧 하나히며 곧 하 無邊흔 刹海에 德用이 徧周하며 十方 身土 | 境과 相괘 서르 들며 邪와 正과 吉와 凶괘 術와 生을 養하며 物을 便安케 흠 方이 法法이 圓通하며 塵塵이 足히 ㄱ존 둘 다 알에 하샷다

<19> “滅”[滅하다] (1개)



(능엄파리04-15) (유형 I 下) (4:42ㄴ7) 滅

已滅[下]三界衆生世間엿 見엿 所斷惑하나
하마 三界 衆生 世間엿 보맷 그춤 惑을 滅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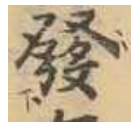
<20> “慧”[어엿비 너기다] (1개)



(능엄파리02-09) (유형 I 下) (2:33ㄱ1) 慧

慧[下]諸有學이 空溺多聞하고 不開慧目하야 而迷倒輪轉也하시니라
모든 有學이 혼갓 해 드로매 빠디고 慧目을 여디 몬하야 迷惑하며 갓ㄱ라 그우뉴물 어엿비 너기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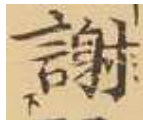
<21> “發”[發하다] (1개)



(능엄파리06-03) (유형 I 下) (6:33ㄱ5) 發

皆發[下]無等等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하니라
다 無等이 등하신 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을 發하니라

<22> “謝”[謝하다] (1개)



(능엄파리04-12) (유형 II 下-上) (4:31ㄴ5,6) 謝, 益

謝[下]發明覺性하샤 決通疑滯之益[上]也하소오니라
覺性을 發明하샤 疑心 마킨 덜 하하야 通하오샤 利益을 謝하소오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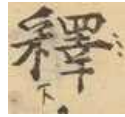
<23> “庶”[브라다] (1개)



(능엄파리03-12) (유형 I 下) (3:48ㄱ8) 庶

庶[下]盡斷惑障하야 成就果願也하니라
惑障을 다 그쳐 果願 일우물 브라니라

<24> “釋”[사기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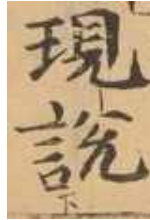


(능엄파리04-16) (유형 I 下) (4:47ㄴ3) 釋

釋[下]上엿 因妄發故로 六皆虛妄하시니

우헛 妄을 因하야 發혼 전초로 여스시 다 虛妄호물 사기시니

<25> “說”[니르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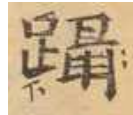
(능엄파리04-10) (유형 II 下-Vb) (4:26ㄱ7,ㄴ1) 現說

, 得

現-說[下]殺盜婬業三緣이 斷故로 三因이 不生하야 心中達多이 狂性이 自歇하야 歇하면 卽菩提라 不從人得[現說]이라하시니

殺盜婬業 三緣이 그흔 전초로 三因이 나디 아니하야 心中엿 達多이 미친 性이 제 歇하야 歇하면 곧 菩提라 사
르물 브터 得디 아니하리라 現히 니르시니

<26> “躡”[드디다] (1개)



(능엄파리04-09) (유형 I 下) (4:23ㄴ2) 躡

躡[下]上各各圓-滿之言하야

우헛 各各 圓滿이라 하산 마를 드디여

<27> “成”[일우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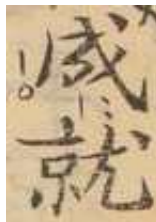


(능엄파리04-14) (유형 I 下) (4:37ㄱ4) 圓成

圓-成[下]果地修證하리니

果地엿 닷가 證호물 두려이 일우리니

<28> “成就”[일우다] (1개)



(능엄파리05-04) (유형 II 〇-〇) (5:12ㄴ3) 成就

, 開示

成-就[〇]如來最後開-示[〇]하쇼셔

如來入 닷 後入 여러 뵈샤물 일우쇼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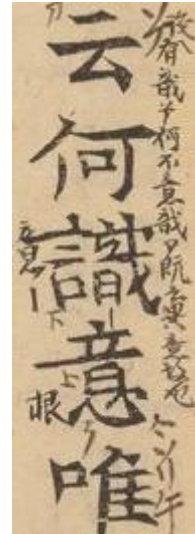
<29> “識”[알다] (1개)

(능엄파리03-06) (유형 II 下-上) (3:25ㄴ2) 識-意

若有所識하면 云何識[下]-意[上]라 하리오

하다가 아룀 고디 이시면 엇데 識意라 하리오

[하다가 뜯과 달오디 제 아룀 고디 이췌던덴 엇데 뜯데서 아는다 하리오]



<30> “失”[잃다] (1개)

(능엄파리04-13) (유형 I 下) (4:36ㄴ6) 失

失[下]其準常하니

덜덜호물 일흐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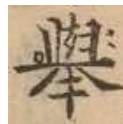


<31> “言”[니르다] (1개)

(능엄파리01-03) (유형 II 〇-〇) (1:21ㄴ4,5) 言

言[〇]乞食歸林은 乃舉[〇]見前엿 方食之衆하시니

밥 비러 林에 도라오다 하샤몬 現前엿 비야호로 밥 먹는 衆을 드러 니르시니



<32> “因”[인하다] (1개)

(능엄파리04-03) (유형 I 下) (4:9ㄱ8) 因

因[下]空昧之土와 生搖爲木과하야

空昧하 土와 이어오물 내야 木 ㄷ외옴과를 인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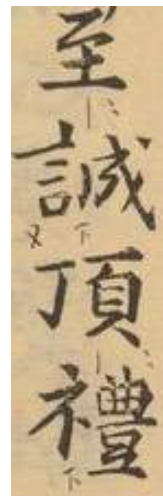


<33> “頂禮”[頂禮하다] (1개)

(능엄파리07-02) (유형 I 下下) (7:9ㄴ3) 至誠, 頂禮

至-誠[下]頂-禮[下]十方如來와 諸大菩薩와 阿羅漢號하야

十方 如來와 諸大菩薩와 阿羅漢入 일후믈 至誠으로 頂禮하야



<34> “指”[긔치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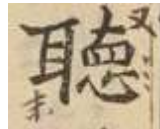


(능엄파리03-02) (유형 I 下) (3:1ㄴ2) 指

指[下]色陰中엿 目瞪發勞ᄃ야 別見狂華ᄃ샤

色陰 中엿 누늘 바ᄃ 떠 잇부미 나 各別히 미친 곳 보물 긔치샤

<35> “聽”[듣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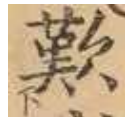


(능엄파리07-04) (유형 I 末) (7:12ㄱ1) 聽

聽[末]佛無見頂相엿 放光如來 | 宣說神呪ᄃ 습더니

부텃 無見頂相엿 放光 如來 | 神呪 퍼 니르샤물 듣줍더니

<36> “歎”[讚歎ᄃ다] (1개)



(능엄파리05-07) (유형 I 下) (5:25ㄴ5) 歎

歎[下]我神力이 圓明清淨ᄃ야 自在無畏라ᄃ시느니

내 神力이 圓明清淨ᄃ야 自在ᄃ야 저품 업스니라 讚歎ᄃ시느니

<37> “現”[現ᄃ다] (1개)



(능엄파리07-03) (유형 I 下) (7:11ㄴ8) 示現

皆徧示-現[下]十恒河沙金剛密-迹이 擎山持杵ᄃ야 徧虛-空界커늘

다 十恒河沙 金剛密迹이 뵈ᄃ 바ᄃ며 杵를 자바 虛空界에 ᄃᄃ기 뵈여 現커늘

파리본 『능엄경』에서 점, 숫자 이외의 어순 표시 기호가 사용된 용례 자료집C
-권차별 분류-

장경준

권차	I (동사에 기입)			II (동사와 목적어에 모두 기입)						III (목적어에 기입)	(총계)
	下	下, 下	末	下-下	下-上	下-Vb	下, 下 -Vb	末-末	O-O	Vb	
권1	O (4)	O (1)	×	×	O (1)	×	×	×	O (1)	O (1)	8
권2	O (6)	O (2)	×	O (1)	O (1)	O (1)	×	×	O (1)	O (2)	14
권3	O (8)	×	×	×	O (1)	O (2)	×	×	×	O (1)	12
권4	O (7)	×	×	×	O (2)	O (3)	×	O (1)	×	O (3)	16
권5	O (5)	O (1)	×	×	×	O (1)	×	×	O (1)	O (1)	9
권6	O (2)	×	×	×	×	×	O (1)	×	×	×	3
권7	O (5)	O (1)	O (2)	×	×	×	×	×	×	×	8
권8	O (1)	×	×	×	×	×	×	×	×	×	1
권9	O (1)	×	×	×	×	O (1)	×	×	O (1)	×	3
권10	O (1)	×	×	×	×	×	×	×	O (2)	O (1)	4
파리본 전체	(40)	(5)	(2)	(1)	(5)	(8)	(1)	(1)	(6)	(9)	78

<권1> (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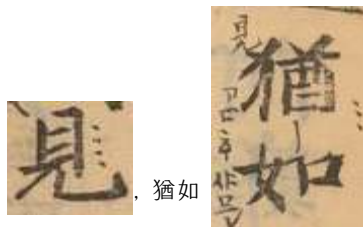
(능엄파리01-01) (유형 II 下-上) (1:10-4) 顯, 在



以顯[下]阿難示迹이 實無虧汚호야 意在[上]拔濟也인들호니라

阿難스 자최 비요미 實로 허리며 더러유미 업서 쓰디 싸허며 濟度호매 잇는 둘 나토니라

(능엄파리01-02) (유형 III) (1:16-8, 1) 見, 猶如



我見如來스 三十二相이 勝妙 | 殊絶호샤 形體 | 映徹호샤미 猶-如[見]琉璃호 습고

如來入 三十二相이 7장 微妙하샤미 ㅍ로 다르샤 形體 스몓 비취샤미 瑠璃 [곤하샤물](#) 내 [보습고](#)



(능엄파리01-03) (유형 II O-O) (1:21ㄴ4,5) 言

[言\[O\]](#)乞食歸林은 乃[舉\[O\]](#)見前엿 方食之衆하샤니

밥 비러 林에 도라오다 하샤문 現前엿 비야호로 밥 먹는 衆을 [드러 니르시니](#)



(능엄파리01-04) (유형 I 下) (1:32ㄴ7) 由

皆[由\[下\]](#)不知二種根本하야 錯亂修習이니

다 두 가짓 根本을 아디 못하야 錯亂히 닷가 니긴 [다시니](#)



(능엄파리01-05) (유형 I 下) (1:33ㄴ7) 由

皆[由\[下\]](#)不知二本하고 錯亂修習하샤니

다 두 根源을 아디 못하고 錯亂히 닷가 니긴 [다실씨니](#)



(능엄파리01-06) (유형 I 下) (1:34ㄴ2) 見

我[見\[下\]](#)如來 | 舉臂屈指하샤 爲光明拳하샤 曜我心目하샤니 돌하노이다

如來 | 불 드르샤 손가락 구피샤 光明하 주머귀 밍그르샤 내心目에 비취샤니 돌 내 [보습노이다](#)



(능엄파리01-07) (유형 I 下) (1:38ㄴ7) 知

乃[知\[下\]](#)雖有多聞하야도 若不修行하면 與不聞과 等호미 如人이 說食호매 終不能飽하샤니 돌하노이다

비록 해 드로미 이셔도 하다가 修行 아니하면 아니 드롬과 곤호미 사르미 밥 닐오매 내중내 能히 비브르디 못
듯하 돌 [알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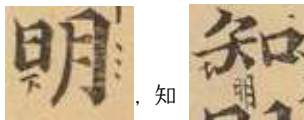


(능엄파리01-08) (유형 I 下下) (1:44ㄴ8) 我見

[我\[下\]](#) [見\[下\]](#)如來 | 百寶輪掌을 衆中에 開合하샤니 돌하노이다

如來 | 百寶輪掌을 衆中에 펴락 쥐락 하샤물 내 [보습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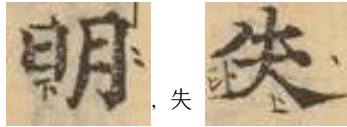
<권2> (14개)



(능엄파리02-01) (유형 II 下-Vb) (2:2ㄴ1,3) 明

[明\[下\]](#)不生滅性은 在纏이 皆具 | 언마른 而世俗이 但隨物化하샤니 雖居至貴하야도 終從變滅하리어늘 曾不自[知\[明\]](#)
ㄴ 돌하샤니

匪王을 브터 니르와드샤문 生滅 아니하샤 性은 얹큐메 잇느니 다 곳건마른 世俗이 오직 物을 조차 드윅씨 비록
至極히 貴호매 이셔도 모츠매 變하야 업수를 조츠리어늘 제 [아디](#) 못하샤니 돌 [불기시니](#)



(능엄파리02-02) (유형 II 下-上) (2:5ㄴ6,7) 明, 失

明[下]諸佛衆生이 同一體性하야 固無遺失커늘 特依倒見하야 言遺**失**[上]也ㄴ돌하시니라
諸佛와 衆生과 體性이 혼가지라 本來 일흠 주리 업거늘 오직 갓그리 보물 브터 **일타** 니르느 돌 **불기시니라**



(능엄파리02-03) (유형 I 下) (2:6ㄴ1) 知

知[下]汝身을 與諸如來淸淨法身과 比類發明컨댄 如來之身은 名正徧知오 汝等之身은 號性顛倒 | 니라
네 모물 諸如來淸淨한 法身과 類를 가줄며 發明컨댄 如來스 모던 일후미 正徧知오 너희들히 모던 일후미 性顛倒ㄴ돌 **아롭디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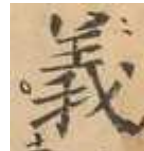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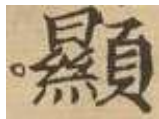
(능엄파리02-04) (유형 I 下) (2:9ㄴ2) 悟

悟[下]妙明心이 本來圓徧하야 了無遺失하니
法音 듣조오물 因하야 微妙히 볼근 막스미 本來 두려이 퍼 일흠 줄곧 업소물 **아니**



(능엄파리02-05) (유형 I 下) (2:14ㄴ3) 至

非汝 | 며 **至**[下]七金山히 周徧諦觀하라
너 아니며 七金山애 **니르리** 周徧히 子細히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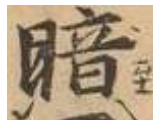
(능엄파리02-06) (유형 II 〇-〇) (2:23ㄴ4,5) 顯, 義

爲**顯**[〇]見과 與見緣과 如虛空花하야 於中에 本無是와 非是**義**[〇]하실시
見과 見의 緣과 虛空엿 곳 곤하야 그 中에 本來 이와 이 아닌 **쁘디** 업수물 爲하야 **나토실씨**



(능엄파리02-07) (유형 III) (2:28ㄴ2,3) 至, 塞

如是乃**至**因空因**塞**[至]이
이긔티 空을 因하며 **마고물** 因호매 **니르리**



(능엄파리02-08) (유형 III) (2:28ㄴ5) 至, 暗

如是乃**至**緣明緣**暗**[至]이
이곤히 불고물 緣하며 **어드우물** 緣호매 **니르리**



(능엄파리02-09) (유형 I 下) (2:33ㄴ1) 慧

慧[下]諸有學이 空溺多聞하고 不開慧目하야 而迷倒輪轉也하시니라
모던 有學이 혼갓 해 드로매 빠디고 慧目을 여디 몬하야 迷惑하며 갓그라 그우뉴물 **어엿비** 너기시니라

(능엄파리02-10) (유형 I 下下) (2:35ㄱ3) 不,說言

不[下]應說-言[下]호디 此捏根元이 是形과 非形과며離見과 非見이니라

썩비는 根源이 이 얼굴와 얼굴 아니와며 봄과 봄 아눔과 여히요물 닐오미 몬히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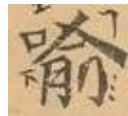
(능엄파리02-11) (유형 I 下下) (2:35ㄱ8) 不,應執

亦不[下]應-執[下]非燈非見이니

燈 아니며 봄 아니라 자보미 몬히리니



(능엄파리02-12) (유형 II 下-下) (2:36ㄱ7,8) 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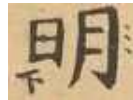
, 清淨



喻[下]有漏境界는 唯妄覺이샤 見之는 卽同業妄-見也 | 오 彼無漏者는 見이 本清-淨[下]인들 하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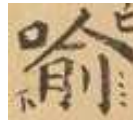
漏 잇는 境界는 오직 妄한 覺이샤 보몬 곧 험가짓 業의 妄見이오 더 漏 업스닌 보미 本來 清淨흔들 가줄비시니

(능엄파리02-13) (유형 I 下) (2:41ㄱ5) 明



皆明[下]浮塵幻相이 一無實體하야 不容窮詰인들 하시니라

다 뜬 드트릭 거죽 相이 하나토 實한 體 업서 窮究하야 詰難티 몬호물 불기시니라



(능엄파리02-14) (유형 I 下) (2:51ㄱ1) 喻

喻[下]性이 無生滅하며 無捨受커늘 以依幻-妄-身홀시 故로 逃形於此하야 托生於彼하시니

性이 생과 滅와 업스며 브리며 바도미 업거늘 幻妄한 모물 브틀씨 이런드로 이에 열구를 逃妄하야 더에 생을 브투물 가줄비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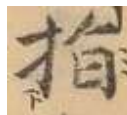
<권3> (12개)

(능엄파리03-01) (유형 I 下) (3:1ㄴ2) 明



明[下]眼-入之妄이 同彼也하시니라

眼入의 妄이 더 곤흔 들 불기시니라



(능엄파리03-02) (유형 I 下) (3:1ㄴ2) 指

指[下]色陰中엿 目瞪發勞하야 別見狂華하샤

色陰 中엿 누늘 바르 떠 잇부미 나 各別히 미친 곳 보물 구르치샤

(능엄파리03-03) (유형 II 下-Vb) (3:16ㄱ3) 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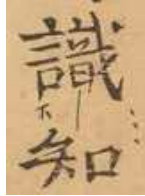
, 在



由[下]徵心에 云흔 識生其中則爲心在[由]하샤

徵心에 닐온 識이 그 中에 나느니 막숨 잇는 디라 호물 브트샤

(능엄파리03-04) (유형 I 下) (3:22ㄴ1) 識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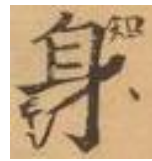
云何識-知[下]是味와 非味와 하리오

엇데 이 맛과 맛 아니와를 알리오

(능엄파리03-05) (유형 III) (3:24ㄱ8, ㄴ1) 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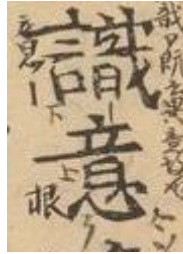
, 身



當知身이 卽觸也 | 며 觸이 卽身[知]也 | 로다

반드기 모미 곧 觸이며 觸이 곧 모민돌 알리로다

(능엄파리03-06) (유형 II 下-上) (3:25ㄴ2) 識-意



若有所識하면 云何識[下]-意[上]라 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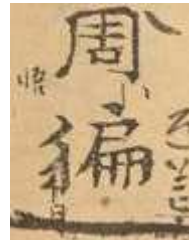
하다가 아룀 고디 이시면 엇데 識意라 하리오

[하다가 뜯과 달오디 제 아룀 고디 이슌딘덴 엇데 뜯데서 아느다 하리오]

(능엄파리03-07) (유형 II 下-Vb) (3:26ㄴ8) 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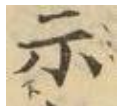
, 周徧



使悟[下]物와 我와 同根하며 是非 | 一體라 法法이 圓成하며 塵塵이 周徧[悟]케 하시니라

物와 나와 根源이 혼가지며 是와 非와 혼 體라 法法이 두러이 일며 塵塵이 周徧혼 둘 알에 하시니라

(능엄파리03-08) (유형 I 下) (3:28ㄱ2) 示



開示[下]衆生中道了義無戲論法하쇼셔

衆生이게 中道了義 노르셋 議論 업슨 法을 여러 뵈쇼셔

(능엄파리03-09) (유형 I 下) (3:29ㄱ8) 直示

直-示[下]大性이 非和와 不和와 之理하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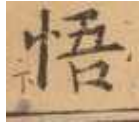
大의 性이 和와 和 아니와 아닌 理를 바르 뵈샤





(능엄파리03-10) (유형 I 下) (3:31ㄴ5) 不

不[下]用識-心 ㅎ야 分-別計度 ㅎ 然後에사
識心을 ㅅ 分別 ㅎ며 헤아림 아니 ㅎ 後에사



(능엄파리03-11) (유형 I 下) (3:45ㄱ8) 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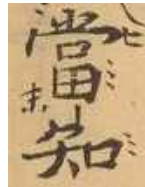
悟[下]其本如來藏矣리라
本來 ㄴ 如來藏을 알리라



(능엄파리03-12) (유형 I 下) (3:48ㄱ8) 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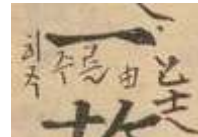
庶[下]盡斷惑障 ㅎ야 成就果願也 ㅎ니라
惑障을 다 그쳐 果願 일우믈 브라니라

<권4> (16개)



(능엄파리04-01) (유형 II 末-末) (4:5ㄴ8,6ㄱ1) 當知

當-知[末]有所와 無所와 是明과 非明과 皆爲妄度 | 라 終非妙明明妙之眞[末]也 | 로다
所 이솜과 所 업솜과 이 明과 明 아니와 다 거죿 헤미라 내중에 妙明明妙 ㅎ 眞이 아닌 둘 반듯기 알리로다



(능엄파리04-02) (유형 II 下-Vb) (4:6ㄱ6,7) 由

由[下]不如實知眞如法이 一[由] ㅎ시
眞如法이 하나하론 주를 實다히 아디 몬 ㅎ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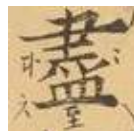
(능엄파리04-03) (유형 I 下) (4:9ㄱ8) 因

因[下]空昧之土와 生搖爲木과 ㅎ야
空昧 ㅎ 土와 이어오믈 내야 木 ㄴ 외옴과를 因 ㅎ야



(능엄파리04-04) (유형 I 下) (4:18ㄱ8) 爲

隨爲[下]色空 ㅎ야
色과 空과를 조차 ㄴ외야



(능엄파리04-05) (유형 III) (4:21ㄴ3) 至

如是乃至卽意識界며 卽明無明과 明無明하야 盡[至]이며
이갓티 곧 意識界며 곧 無明 불공과 無明 불겨 다오매 니를며

(능엄파리04-06) (유형Ⅲ) (4:21ㄴ3,4) 至, 盡



如是乃至卽老ㅣ며 卽死ㅣ며 卽老死ㅣ [至]盡이며
이갓티 곧 老ㅣ며 곧 死ㅣ며 곧 老死ㅣ 다오매 니를며

(능엄파리04-07) (유형Ⅲ) (4:21ㄴ6,7) 至, 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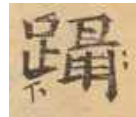
如是乃至卽怛闍阿竭이며 卽阿羅訶와 三耶三菩ㅣ며 卽大涅槃이며 卽常이며 卽樂이며 卽我ㅣ며 卽淨[至]이니
이갓티 곧 怛闍阿竭이며 곧 阿羅訶와 三耶三菩ㅣ며 곧 大涅槃이며 곧 常이며 곧 樂이며 곧 我ㅣ며 곧 淨에 니르니

(능엄파리04-08) (유형Ⅱ下-Vb) (4:22ㄴ3) 由, 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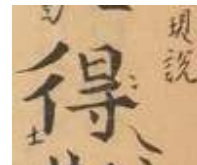
由[下]不勤求無上覺道하고 愛念小乘하야 得少爲足[由]이니라
우 업슨 覺道를 브즈러니 求티 아니하고 小乘을 得샤 念하야 저기 得하고 足호라 하는 다시니라

(능엄파리04-09) (유형Ⅰ下) (4:23ㄴ2) 躡



躡[下]上各各圓-滿之言하야
우윗 各各 圓滿이라 하산 마를 드딕여

(능엄파리04-10) (유형Ⅱ下-Vb) (4:26ㄱ7,ㄴ1) 現說, 得



現-說[下]殺盜婬業三緣이 斷故로 三因이 不生하야 心中達多이 狂性이 自歇하야 歇하면 卽菩提라 不從人得[現說]이라하시니

殺盜婬業 三緣이 그튼 전초로 三因이 나디 아니하야 心中엿 達多이 미친 性이 제 歇하야 歇하면 곧 菩提라 사
르물 브터 得디 아니하리라 現히 니르시니

(능엄파리04-11) (유형Ⅱ下-上) (4:28ㄴ2) 不, 本



※오류일 가능성 있음

非不[下]本[上]狂이니
本來 미치디 아니함 아니니

(능엄파리04-12) (유형Ⅱ下-上) (4:31ㄴ5,6) 謝, 益



謝[下]發明覺性호샤 決通疑滯之益[上]也호스오니라

覺性을 發明호샤 疑心 마킨 덜 決호야 通히오산 利益을 謝호스오니라



(능엄파리04-13) (유형 I 下) (4:36ㄴ6) 失

失[下]其準常호니

덜던호물 일호니



(능엄파리04-14) (유형 I 下) (4:37ㄴ4) 圓成

圓-成[下]果地修證호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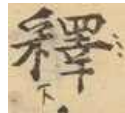
果地엿 닷가 證호물 두려이 일우리니



(능엄파리04-15) (유형 I 下) (4:42ㄴ7) 滅

已滅[下]三界衆生世間엿 見엿 所斷惑호나

호마 三界 衆生 世間엿 보엿 그춤 惑을 滅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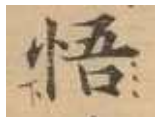


(능엄파리04-16) (유형 I 下) (4:47ㄴ3) 釋

釋[下]上엿 因妄發故로 六皆虛妄호시니

우헛 妄을 因호야 發혼 전초로 여스시 다 虛妄호물 사기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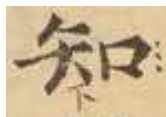
<권5> (9개)



(능엄파리05-01) (유형 I 下) (5:8ㄴ7) 悟

使悟[下]凡所妄動이 皆爲結業也케호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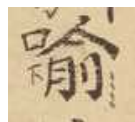
믈읷 妄히 動호미 다 민 業이 득외요물 알에 호시니라



(능엄파리05-02) (유형 I 下) (5:8ㄴ6) 知

汝知[下]此巾이 元止一條ㅣ 어늘 我ㅣ 六綰時에 名有六結인들호느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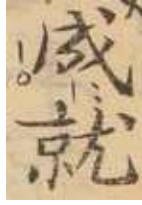
네 이 巾이 本來 다몬 혼 오리어늘 내 여섯 번 묶 時節에 일후미 여섯 미요미 잇는 둘 아느니



(능엄파리05-03) (유형 I 下) (5:10ㄴ3) 喻

喻[下]依偏權之教호야 不知眞要호고 適重狂勞호시니

偏혼 權엿 ㄱㄹ치샤물 브터 眞實스 要를 아디 묻고 마치 미치며 잇부물 重히 호물 가줄비시니



(능엄파리05-04) (유형 II O-O) (5:12ㄴ3) 成就, 開示

成-就[O]如來最後開-示[O]호쇼서

如來스 뒤 後스 여러 비샤물 일우쇼서



(능엄파리05-05) (유형 I 下下) (5:18ㄱ7) 微細, 窮盡

微-細[下]히 窮-盡[下]生住異滅호는 諸行이 刹那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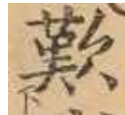
生호며 住호며 異호며 滅호는 諸行이 刹那를 微細히 窮盡호야



(능엄파리05-06) (유형 III) (5:24ㄴ4,5) 至, 淨

如是乃至三千威-儀와 八萬微細性業과 遮-業과를 悉皆清淨[至]호야

이ㄱ티 三千 威儀와 八萬 微細호는 性業과 遮業과를 다 清淨호매 니르러



(능엄파리05-07) (유형 I 下) (5:25ㄴ5) 歎

歎[下]我神力이 圓明清淨호야 自在無畏라호시느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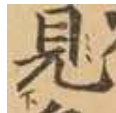
내 神力이 圓明清淨호야 自在호야 저품 업스니라 讚歎호시느니



(능엄파리05-08) (유형 I 下) (5:26ㄱ6) 觀

徧觀[下]百骸四支옛 諸冷煖氣호라호야시늘

百骸와 四支옛 모든 차며 더운 氣分을 다 보라 호야시늘



(능엄파리05-09) (유형 II 下-Vb) (5:27ㄴ2,3) 見, 觸

見[下]身微塵이 與造世界所有微塵과로 等無差別호야 微塵自性이 不相觸摩호며 乃至刀兵도 亦無所觸[見]호들호야

모랫 微塵이 世界 밍ㄱ랫는 微塵과 곧호야 곁히요미 업서 微塵과 自性이 서르 다티 아니호며 刀兵에 니르러도

또 다호미 업스 들 보아

<권6>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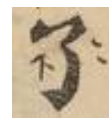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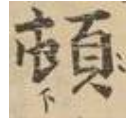
(능엄파리06-01) (유형 I 下) (6:17ㄱ5) 明



明[下]彼所現이 雖各一端이나 圓而會之컨댄 咸極於此인들 하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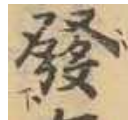
덕의 現호미 비록 各各 흔 그티나 두려이 뵈호건댄 다 이에 다둔는 들 불기샤

(능엄파리06-02) (유형 II 下下-Vb) (6:17ㄱ6,17ㄴ1) 頓



使悟入者로 不止二十五門이라 頓[下]了[下]八萬塵勞와 法界理事 | 曾不離吾의 一圓融淨覺之體하야 能同能異하
며 卽一卽多하야 無邊刹海에 德用이 徧周하며 十方身土 | 境과 相과 相入하며 邪正吉凶之術와 養生安物之方
이 法法이 圓通하며 塵塵이 足具[見]矣샏다

아라 들리로 二十五門뿐 아니라 八萬 塵勞와 法界入 理와 事와 내이 흔 두려이 노곤 조흔 覺이 體에 값간도
여히디 아니하야 能히 ㄱ특며 能히 다르며 곧 하나히며 곧 하 無邊흔 刹海에 德用이 徧周하며 十方 身土 | 境
과 相과 서르 들며 邪와 正과 吉과 凶과 術와 生을 養하며 物을 便安케 ㅎ 方이 法法이 圓通하며 塵塵이 足히
ㄱ존 들 다 알에 하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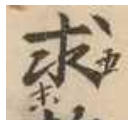
(능엄파리06-03) (유형 I 下) (6:33ㄱ5) 發

皆發[下]無等等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하니라

다 無等이 等하신 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을 發하니라

<권7> (8개)

(능엄파리07-01) (유형 I 末) (7:3ㄱ5) 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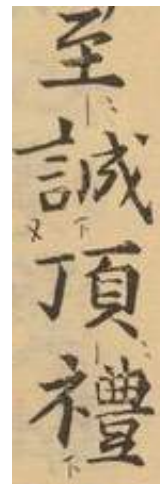
求[末]於十方앗 現住國土하신 無上如來 | 放大悲光하샤 來灌其頂이니라

十方앗 國土애 現住하신 우 업슨 如來 | 大悲光을 퍼샤 덩바기에 와 브스샤물 求흠디니라

(능엄파리07-02) (유형 I 下下) (7:9ㄴ3) 至誠, 頂禮

至-誠[下]頂-禮[下]十方如來와 諸大菩薩와 阿羅漢號하야

十方 如來와 諸大菩薩와 阿羅漢入 일후믈 至誠으로 頂禮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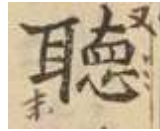


(능엄파리07-03) (유형 I 下) (7:11ㄴ8) 示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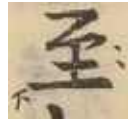
皆徧示-現[下]十恒河沙金剛密迹이 擎山持杵하야 徧虛-空界커늘

다 十恒河沙 金剛密迹이 뵈흠 바드며 杵를 자바 虛空界에 ㄱ득기 뵈여 現커늘



(능엄파리07-04) (유형 I 末) (7:12ㄱ1) 聽

聽[末]佛無見頂相엿 放光如來 | 宣說神呪^하습더니
부텻 無見頂相엿 放光 如來 | 神呪 퍼 니르샤물 듣줍더니



(능엄파리07-05) (유형 I 下) (7:25ㄴ5) 至

如是乃至[下]龍天鬼神精祇魔魅의 所有惡呪 |
이^기 龍 天 鬼 神 精祇 魔魅이 뒷논 모던呪에 니르리



(능엄파리07-06) (유형 I 下) (7:26ㄷ5) 有

一一皆有[下]諸金-剛-衆이 而爲眷屬^하야 晝夜애 隨侍^하느니라
낫나치 다 모든 金剛衆이 眷屬이 드외야 晝夜애 조차 되서 잇느니라



(능엄파리07-07) (유형 I 下) (7:27ㄱ7) 得

得[下]於恒河沙阿僧祇不可說不可說劫에 常與諸佛와 同生一處^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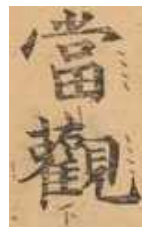
(능엄파리07-08) (유형 I 下) (7:34ㄱ8) 普爲

乃能普爲[下]大衆과 及諸末世一切衆生이 修三摩地^하야 求大乘者^하야
能히 大衆과 모든 末世 一切 衆生이 三魔地 닷가 大乘 求^하릴 너비 爲^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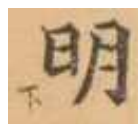
<권8> (1개)

(능엄파리08-01) (유형 I 下) (8:3ㄱ8) 當觀

當-觀[下]姪欲이 猶如毒蛇^하며 如見冤賊이니라
반드기 姪欲이 毒蛇^하며 冤讎入 도죽 봄 곧흔 돌 불디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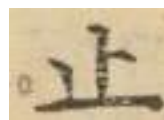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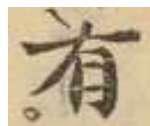


<권9>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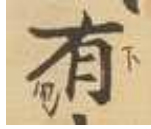
(능엄파리09-01) (유형 I 下) (9:19ㄱ8) 明

以明[下]世界 | 虛幻微芒^하야 易以銷殞也^하시니라
世界 虛幻^하며 微芒^하야 수이 스리 물어듀를 불기시니라



(능엄파리09-02) (유형 II 〇-〇) (9:32ㄱ4) 有 , 止

自有[〇]無限喜生^하야 心中에 歡悅^하야 不能自止[〇]^하리니
제 그지업슨 깃부미 나 心中에 깃거 제 마디 못^하리니



(능엄파리09-03) (유형 II 下-Vb) (9:45-2) 有 , 欲

或^有_[下]宣姪^하야 破佛戒律^하야 與承事者와로 潛行五^俗_[有]하며
시혹 姪을 퍼 부텃 戒律을 허러 바다 섬기리와 五^欲을 그스기 行^하리 ^{이시며}

<권10> (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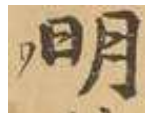
(능엄파리10-01) (유형 I 下) (10:1-1) 見

^見_[下]同生基의 猶如野馬^하야 熠熠清擾^하야 爲浮根塵의 究竟樞穴^하리니
한가지로 난 터히 野馬 곧 ^하야 熠熠히 물기 어즈러 뜬 根塵의 究竟 樞穴인 둘 ^{보리니}



(능엄파리10-02) (유형 III) (10:5-7) 由 , 元

^由妄計行陰^하야 爲生滅圓^元_[由]하야
行陰을 妄히 헤여 生滅入 두려운 ^{根元} 사모물 ^{브터}



(능엄파리10-03) (유형 II O-O) (10:10-4, 5) 明 , 邊

※부호의 모양이 'O'와 차이가 있음.

^明_[O]其世界옛 一切所有도 一半은 有邊^하고 一半은 無邊_[O]이라 흘시라
그 世界옛 一切 잇는 것도 一半은 有邊^하고 一半은 無邊^{이라} 불길씨라



(능엄파리10-04) (유형 II O-O) (10:22-4) 計 , 事

^計_[O]我 | 能爲彼依^하야 能成彼^事_[O]也 | 라
내 能히 더의 브투미 ㄷ외야 더 ^{이를} 能히 일우라 ^{혜요미라}